

하게 된다. 최근 저자는 원자력병원 동위원소과를 방문한 환자중 전혀 일반증상이 없던 갑상선 결절만을 주소로 방문한 12세와 44세의 여자환자 2예에서 갑상선주사상 우엽만 나타났으며 이때 TSH(Hoechst 제) 5 unit를 3일간 계속 주사후 다시 갑상선 주사를 실시한 결과 갑상선과축 무발육증임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8. Lithium 투여로 유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1예

서울의대 신경정신과
정도연 · 우종인 · 이정균

서울의대 내과
조보연 · 고창순

정신과영역에서 흔히 조울병등의 치료에 사용되고있는 lithium이 갑상선기능에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.

lithium 복용 환자에서의 갑상선종대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발생빈도는 대략 5%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작용기전은 주로 갑상선에서 iodine(T_4 , T_3)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되어있다.

저자들은 잠복된 갑상선질환이 있었던 환자에서 lithium 투여에 의해 임상적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유발된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.

본 증례는 44세의 여자로서 조울병의 증상으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2차에 걸친 입원(80.3.31~80.5.20 및 81.2.18~81.3.30) 및 외래통원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초입원 당시의 이학적 검사상 갑상선질환을 의심할만한 특이소견은 없었고 갑상선기능검사소견도 정상범위 였었다(T_3RU : 31.5%, T_4 : 6.0 ng/dl, T_3RIA : 108 ng/dl, TSH: 3.2 $\mu U/ml$) 또한 갑상선질환의 과거력 및 가족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.

초입원부터 재입원직전까지 복용한 lithium의 용량은 1일 900 mg~1200 mg으로 약 12개월반동안 규칙적으로 복용하였으며 그 혈중농도는 0.6 mEq/L~1.3 mEq/L 범위에 있었다.

재입원당시 이학적검사소견상 중등도의 갑상선종대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피로감 및 cold intolerance를 호소하여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소견(T_3RU : 27.0%, T_4 : 2.0 ng/dl, T_3RIA : 55 ng/dl, TSH: 152.3 $\mu U/ml$)을 나타냈으며 TRH 자극검사상 과장된 반응을 보였고 갑상선침생

검의 광학현미경검사와 면역형광학적검사에서 각각 만성립프구갑상선염 및 초점성면역복합체갑상선염의 소견을 볼 수 있었으나 antimicrosomal antibody, antithyroglobulin antibody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.

lithium에 의해 유발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생각하고 lithium 투여를 중단한 후 약 3주후부터 갑상선종대는 축소할 수 없었으며 투여 중단후 5주만에 갑상선기능검사가 정상화되었다(T_3RU : 31.9%, T_4 : 7.7 ng/dl, T_3RIA : 119 ng/dl, TSH: 3.6 $\mu U/ml$). 잠복된 만성갑상선염이 있는 조울병 환자에서 lithium 투여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유발되었다가 투여중단후 5주만에 정상으로 회복된 1예를 보고한다.

9.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의 위내용물 배출시간 (예보)

서울의대 내과

이종철 · 박영태 · 최규완 · 조보연 · 고창순

위내용물의 배출시간은 위장관의 생리적 상태나 기질적인 질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. 예컨대 위축성 위염이나 위암의 경우에는 위내용물 배출시간(Gastric emptying time: GET)이 늦어지며, 소화성 궤양에서는 빨라진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며, 이외에 통증(특히 복통), 복강내 염증 및 외상의 경우에는 위정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. 본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의 위내용물 배출시간을 측정하여 그 질환의 병태생리를 규명하고 나아가서 그 치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내원한 환자중 상부부팽만, 상부부동통, 혹은 속 쓰림을 호소하는 환자로서 위장 X선검사, 위내시경검사, 담낭조영술 및 간기능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여준 환자를 대상으로 위내용물 배출시간을 측정하였다. 이중 정상군에 비하여 위내용물 배출시간이 지연된 환자에는 Metaclopramide를 투여하였으며 단축된 환자군에는 Hyoscine-N-butylbromide를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 여부를 관찰하였다. 위내용물 배출시간의 측정에는 방사능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. 공복상태로 검사시행 전 최소한 30분 이상의 안정 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^{99m}Tc -DTPA 2 mCi를 실온의 생리식염수 500 cc에 희석하여 경구투여하였다. Gamma Camera 아래 바로 누운 상태에서 위부위의 Gamma 선을 측정하고 dynamic scintiphoto